

## 다산포럼

송재소



관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종교를 믿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날 불교사찰 앞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운 승려도 있었다. 또 부처님 오신 날 사찰을 방문하여 축하해준 가톨릭 신부도 있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왜 유독 개신교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시골 학교 교정에 세워둔 단군상(檀君

고유의 전통문화이다. 쳐움과 쳐옹가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많지만, 아내를 빼앗긴 사내의 원한과 슬픔을 춤과 노래로 승화시켜 역신(疫神)을 감동시킨다는 내용의 쳐옹회를 '특정 종교 활동'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41년간이나 지속되어 온 쳐옹문화제를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것은 얼핏 불교계로부터 받아온 그동안의 시달림을 엉뚱한 대상에게 앙갚음한다는 인상마저 준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 현강왕이 동해 용왕의 아들인 쳐옹을 만난 곳이 지금의 울산시 남구 개운포이다. 그 후 그곳에 있는 바위를 쳐옹암이라 이름하고 이를 울산의 삼장으로 삼아 해마다 쳐옹문화제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쳐옹문화의 발원지인 울산에서 쳐옹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자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구나 쳐옹과 쳐옹문화는 국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대도 기독교 측에서 이를 트집 잡고 나선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

&lt;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gt;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처용과 기독교

직무상 종교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2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복무규정 4조 2항'을 기독교 측에서 역이용하고 나섰다. 41

년 째 거행되고 있는 울산의 '처용문화제'

를 문제 삼은 것이다.

울산시 기독교연합회와 울산시 교육협의회, 울산시 성시화(聖市化) 운동본부, 울산문화연대 등 4개 단체가 '울산시가 처용문화제에 세금을 지원함으로써 무당인 쳐옹을 믿고 따르는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처용문화제 지원 관련 조례를 폐지하지 않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울산시

像)을 훼손한 일이 있었고, 동네 입구에 서있는 천하대장군을 도끼로 찍는 일도 있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부 몰지각한 개인의 소행으로 보아 넘길 수 있지만 처용문화제의 경우는 다르다. 개인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가 공식적으로 행의한 것이다.

처용문화제를 '특정 종교 활동'으로 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

신라 왕가인 '처용'에서 유래된 쳐옹회(處容戲)는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궁중과民間에서 널리 행해져온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출범 아래 불교 교단은 정부에 대하여 출근 불만을 표시해왔다. 이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하여 편향적이라는 것이 불교 측의 불만이었다.

같은은 2004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수도 서울을 하느님께 봉헌 한다"는 기도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이 "모든 정부 부처의 복음화가 나의 꿈"이라고 한 말인, 주부길 청와대 흥보기획비서관이 출범집회 참가자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매도한 일 등이 겹치면서 불교계 불만의 수위가 높아졌다.

급기야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차량의 트렁크를 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불만이 폭발했다.

불교계는 대대적인 집회를 열고 대통령 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문책, 공직자 종교 편향 금지 입법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드디어 대통령이 사과하고, 공무원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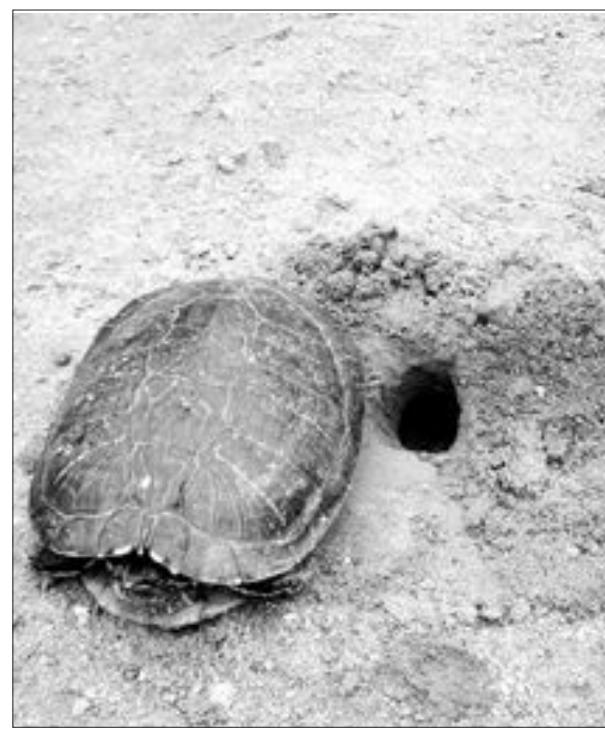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NGO 칼럼

김기홍



## 거북의 자연 회귀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청나라 왕조를 멸망시키고 중국 최초의 공화국을 건국한 이가 손문이다.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손문은 혁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만주를 일본에 넘겨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계획은 중국에서 발생한 5·4운동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됐다면 손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문이 중앙 정부를 위해 만주를 포기했다면 석유자원을 비롯한 자원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중요한 기능

있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 열악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북지와 교육 등 국

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 지방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가 결코 지방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자생력이 열악한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는 결국 가난과 소외라는 천형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을 감수해야 했던 광주·전남은 또다시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중앙정부는 통제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많은 지방을 포기했지만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은 오히려 지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영토 대국들이 중앙 정부의 사정에 급급해 지방을 포기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을 뻔했던 사례와 다르게 세종은 많은 반대에도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사민정책을 통해 경상, 전라, 충청의 삼남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 우리의 영토로 굳건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항상 선진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진화해야 할 지방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이 정부가 지방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만이라도 가만히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방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도 없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지방을 포기하는 행태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여 지방을 유포하고 있다. 산업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을 채택한 정부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 하고

<광주 경실련 정책부장>

## MB 정부 지방 중요성 깨달아야

을 하고 있는 지역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49번 째 주인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소유의 영토였다. 하지만 크림 전쟁 후 재정이 궁핍해진 러시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팔아버렸다. 덕분에 러시아는 확인된 석유 매장량만 45억 배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자원의 보고를 제값도 받지 못한 채 권리를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됐다면 손문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는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문이 중앙 정부를 위해 만주를 포기했다면 석유자원을 비롯한 자원뿐만 아니라 동북

아의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중요한 기능

있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 열악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는 북지와 교육 등 국

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 지방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이러한 행태가 결코 지방을 포기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자생력이 열악한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는 결국 가난과 소외라는 천형을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정권으로부터 차별을 감수해야 했던 광주·전남은 또다시 나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중앙정부는 통제를 용

이하게 하기 위해 많은 지방을 포기했지만 위대한 군주였던 세종은 오히려 지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앞서 언급했던 영토 대국들이 중앙 정부의 사정에 급급해 지방을 포기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거나 잃을 뻔했던 사례와 다르게 세종은 많은 반대에도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사민정책을 통해 경상, 전라, 충청의 삼남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 우리의 영토로 굳건히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항상 선진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선진화해야 할 지방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적어도 이 정부가 지방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만이라도 가만히 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지방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도 없다.

최근 정부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지방을 포기하는 행태를 거리

낌 없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

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5+2 광역경제권

으로 묶어 수도권과 동등하게 경쟁하

도록 하여 지방을 유포하고 있다. 산업화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두 축으로 하는 불

균형 성장을 채택한 정부가 이제는 시대

가 바뀌었으니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방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 하고

<광주 경실련 정책부장>

## 한우 부산물 재고 급증… 군납 등 대규모 소비대책 마련을

한우의 내장이나 뼈같은 부산물 소비가 줄어 재고가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소

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군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곱창, 사골곰탕, 순대 같은 맥을 거리를 많이 찾는다. 군대에서는 쉽사리 접하기 어려운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우의 부산물을이라는데 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한우 농가들이 기울어 한방법을 찾는다면 농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더해 포장하거나 판매를 도모하

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수사도 않고 별금부

터 내리니...' 기분이 업을 뻔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신종 사기수법인 '보이스 피싱'임을 알게 됐다.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않고 끊어버렸지

만 유홍업소 등에서의 접대문화가 만연한 사회풍토에서는 이런 보이스 피싱이 활개칠 수 있겠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그 상

대 여성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확인 안했

어제가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소

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곱창, 사골곰탕, 순대 같은 맥을 거리를 많이 찾는다. 군대에서는 쉽사리 접하기 어려운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우의 부산물을이라는데 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한우 농가들이 기울어 한방법을 찾는다면 농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더해 포장하거나 판매를 도모하

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수사도 않고 별금부

터 내리니...' 기분이 업을 뻔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신종 사기수법인 '보이스 피싱'임을 알게 됐다.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않고 끊어버렸지

만 유홍업소 등에서의 접대문화가 만연한

사회풍토에서는 이런 보이스 피싱이 활개칠 수 있겠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제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그 상

대 여성이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확인 안했

어제가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한다. 일반 소

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군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휴가 나온 군인들은 곰창, 사골곰탕, 순대 같은 맥을 거리를 많이 찾는다. 군대에서는 쉽사리 접하기 어려운 음식들이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우의 부산물을이라는데 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한우 농가들이 기울어 한방법을 찾는다면 농민들에게 조금

이해를 더해 포장하거나 판매를 도모하

는 안내멘트가 나왔다.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이 수사도 않고 별금부

터 내리니...' 기분이 업을 뻔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신종 사기수법인 '보이스 피싱'임을 알게 됐다.

어처구니가 없어 대꾸도 않고 끊어버렸지

만 유홍업소 등에서의 접대문화가 만연한

사회풍토에서는 이런 보이스 피싱이 활개칠 수 있겠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실제 성매매를 한